



3면

민주 한준호 의원 "전북 발전에 큰 힘 되고파"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음 6월 28일)

제 35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바이오산업 육성 '젠걸음'

김관영 도지사, 메카노바이오 기반구축 현장 방문 등 산업 육성 의지 적극 강조 대통령과 민생토론회 통해 지원 요청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찾아 소통 협력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건강기능식품, 동물용의약품, 천연물약품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달 1일 민선 8기 후반기 첫날 전북대에 조성 중인 메카노바이오 기반구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적극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시설과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전북대 연구진을 격려하는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흔들림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메카노바이오는 인체에 미세의료기기를 삽입하여 세포 병변 등을 치료·진단하는 기술로서, 이를 오가노이드 분야에 접목하면 재생치료 실험에 활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칩을 생산할 수 있다.

다음 날인 2일에도 김관영 지사는 서울에 있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을 찾아 재생의료 원천기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과제에 전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본격적인 연구과제 수요조사는 물론 기획 연구과제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달했다.

김관영 지사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방문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과 협력해 전북자치도가 육성하고자 하는 오가노이드 및 재생치료제 분야의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전북대병원 및 원광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

기 때문이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재생의료와 관련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민생토론회를 참관하며, 전북자치도의 바이오 산업 육성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읍 등 바이오 특화단지 후보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을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완주·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9일 김관영 지사가 바이오 산업 앵커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방문해 앵커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사의 투자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협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가 첨단 바이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유치에 대한 협조도 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으로 투자를 약속한 기업과 앞으로 전북에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에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 보류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원광대학교 및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부터 원광대학교에 동물

오가노이드분야 연구소와 동물오가노이드 뱅크를 개설하는 등 전북자치도와 흔들리지 않고 협력을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자치도는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4개의 그린바이오 기반을 고도화해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농식품 기능성소재, 미생물소재, 한의학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등 146만종의 DB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 27개소를 비롯해 수도권 이외 지역 중 의대, 약대, 한의대 관련학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급병원 2개소 등 14개 종합병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병원 인프라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에도 강점을 갖추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MIT, 하버드, 존스홉킨스, KIST유럽연구소 등)를 바탕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수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지역의 바이오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발돋움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바이오 특화단지에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발표가 불투명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동안 준비한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일관되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전북의 바이오 산업 육성에 필요한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푸른 하늘과 개화한 배롱나무



화창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에 배롱나무 꽃이 개화하고 있다.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당했다

학생 등 32만20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대학, 즉각 조치 돌입 피해 사실 홈페이지·개별 공지, 2차 피해방지 위한 창구도 마련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3시, 밤 10시, 밤 11시 2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학통합정보시스템인 '오아시스'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개인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다. 확인 결과 학생 및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2,4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즉시 조치에 들어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을 포함해 학생과 졸업생은 74개 항목이고,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이다.

이에 전북대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경 해킹 시도를 인지한 후 즉각 공격 공격 IP(홍콩, 일본)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 대학통합정보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개인정보침해사고 대응반을 꾸리고, 72시간 이내인 8월 1일 오후 1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사실을 대학 홈페이지와 개별 공지를 통해 알렸다. 이와 함께 교육

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신고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중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실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2차 피해 접수를 위한 피해 접수창구도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전북대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개인정보 유출 내역 조회하기'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순태 정보혁신처장은 "결코 일어 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해킹사도 사실 확인 후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2단계 인증 의무화를 포함해 대폭 강화된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 해킹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자치도, 2024년 유망중소기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모집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전북자치도 유망중소기업은 매년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각종 평가를 거쳐 선정해 기업 관련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부서나 경제 관련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시·군, 경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에는 '중소기업지원위원회'의 심층심사를 통해 최종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티메프' 사태 도내 피해액 104억으로 늘어

'티메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업체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재원 마련과 보증기관 미이용 업체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시급해 보인다.

1일 전북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티몬, 위메프 입점 업체는 255개사(티몬 164개사, 위메프 235개사, 중복 가능)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는 누적 48건 104억3,920만원이다.

실제 익산 소재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A사는 34억2022만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역시 익산 지역에서 전

자제품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B사는 2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저금리로 적극적으로 신속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수경비 1,000만원을 포함,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에 나선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재원으로 우선 공급 후 전북자치도와 금융기관과 협의해 추가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